

## 2월 27일자 경향신문“한경연은‘재계 논리’떠느라 사실 왜곡도”보도관련 한경연 참고자료

“전경련과 한경연은 재계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느라 ‘사실’을 왜곡하기도 했다....한경연은 해외로 동반진출한 협력업체로 보면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가 중국 베이징에 현지 생산을 확대한 결과 동반진출한 중소·중견 협력사 국내 고용이 비협력사보다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경연은 현대차 생산시설이 해외로 가면서 국내에서 늘어날 수 있었던 일자리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았다. 대기업 자체 고용을 따지지 않고 협력사를 들이대면서 논점을 회피한 것이다...”

동 기사는 한경연은 해외로 동반진출한 협력업체로 보면 일자리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기도 했다고 보도하였다. 현대차 생산시설이 해외로 가면서 국내에서 늘어날 수 있었던 일자리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대기업 자체 고용을 따지지 않고 협력사를 들이대면서 논점을 회피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관련 한경연 보고서에서는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이 국내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고려하였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생산비 절감을 위해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의 부정적 효과와는 달리 해외 거대시장을 신규 개척하기 위한 해외진출의 국내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논점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국현지에서 현재 연간 100만대를 판매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베이징 현지진출이 산업전체 수준에서 국내 일자리 창출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17개 산업에 속한 국내 중소·중견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보고서를 사실왜곡의 사례로 제시한 동 기사는 보고서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한경연은 현대차 생산시설이 해외로 가면서 국내에서 늘어날 수 있었던 일자리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동 기사와 관련하여 - 사실, 해당 보고서<sup>1)</sup>는 요약문과 본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함으로써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이 국내 일자리를 감소시킬 있다는 점을 고려함

- (보고서, 1페이지, 1째줄) “투자순유출은 곧 국내 일자리 감소라는 주장은 국내설비시설이 당장 해외로 이전하는 측면에서는 일리가 있다.”

1) 최남석(2013), 『투자순유출은 국내 일자리를 줄이는가?』, KERI FACTS 2113-11-11, 한국경제연구원.

- (보고서, 1페이지, 아래에서 8째줄) “당장 국내에 투자될 자본이 해외로 나갔다는 측면에서 국내 설비투자가 줄어들고 그 결과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음”
- “대기업 자체 고용을 따지지 않고 협력사를 들이대면서 논점을 회피한 것이다.”라는 동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 사실, 보고서는 논점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기존 연구들이 간과해왔던 중국과 같은 새로운 거대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현지생산을 확대하는 경우 국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음
  - (보고서, 1페이지, 아래에서 6째줄)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지 신시장개척을 위한 해외 직접투자를 생산비절감을 위한 기업의 해외진출 목적과 구별하지 않고 투자 순수출은 국내고용에 부정적이라고 판단함”
    -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1) 신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현지에 진출. 2) 생산비절감을 위해 설비를 해외로 이전.
    - 보고서는 생산비절감을 위해 생산설비를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국내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보고서의 서두에 기술하였음
    - 보고서에서는 해외직접투자의 다른 유형인 신시장개척을 위한 해외진출의 경우 국내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음
  - 국가차원의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단순히 해외로 진출한 기업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협력업체들의 수출, 생산 및 일자리에 대한 파급효과를 미시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후 장단기적인 안목에서 거시적으로 종합하여 분석하였음
    - (보고서, 1페이지, 아래에서 4째줄) “투자 순수출이 기업수준에서 실제로 국내일자리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 미시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국가차원의 일자리 파급효과를 추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17개 산업 내 현대차 협력사 80개와 비협력사 12,275개의 2011년 국내고용, 매출 및 수출을 비교분석함
- 보고서를 “사실 왜곡”의 사례로 제시한 동 기사는 보고서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됨
  - 보고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신시장개척을 위해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 국내 협력업체의 일자리창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으므로 사실을 왜곡하였다는 동 기사는 보고서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인하였다고 판단됨
    - (보고서, 3페이지, 첫째문단) “성공적 현지화를 통해 해외생산확대 및 새로운 거대시장을 개척할 경우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해외직접투자에 의한 투자순유출을 부정적 시각으로만 보는 것은 잘못된 접근”